

아버지요 오일장

오일장이 주말이면
나는 세상 제일 좋은 날을 맞이했다.
아버지 손 꼭 잡고
장터로 가는 길,
내 걸음은 구름 같았다.

사람들 북적이는 틈 사이
아버지는 늘 내 손을 놓지 않았고

나는 그 속에서
세상 가장 든든한 사랑을
느꼈다.

장보시던
내 짝을
"자 장며

그 한마디에

아버지 눈빛이
보시며

먹을까?"

세상이 반짝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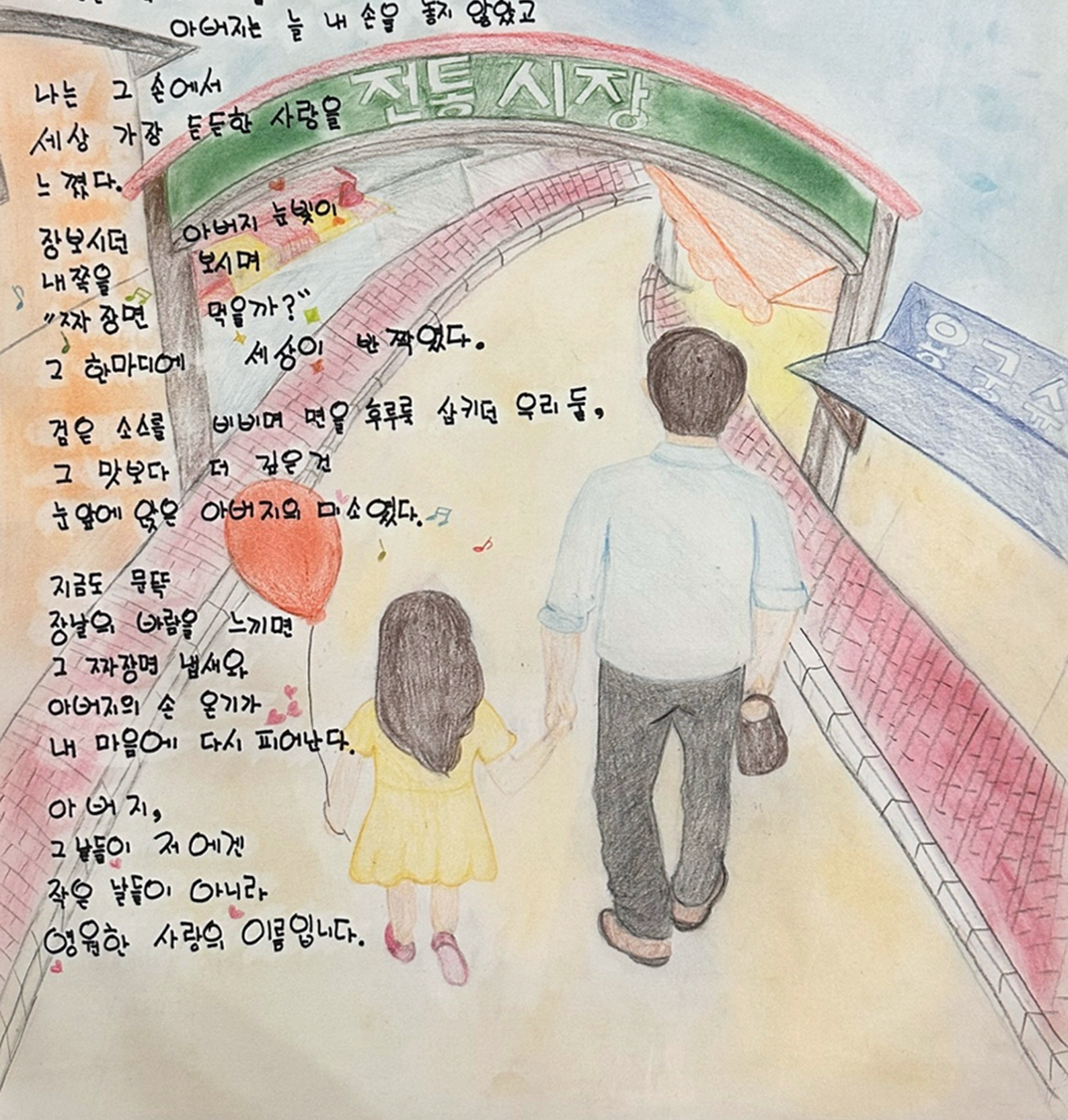
검은 소스를 바비며 면을 후루룩 삼키던 우리 둘,
그 맛보다 더 값은 건
눈앞에 앉은 아버지의 미소였다.

지금도 문득
장날의 바람을 느끼면
그 자장면 냄새와
아버지의 손 온기가
내 마음에 다시 피어난다.

아버지,
그 날들이 저에게
작은 날들이 아니라
영원한 사랑의 이름입니다.

사회복지학과 A반

윤 경 흐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노인과 바다 <헤밍웨이>

작품 설명

아버지와 오일장에 갔던 추억을 담아 보았다.